

2023년 충청남도 학사관(서울+대전) 도내 문화탐방프로그램 일정

○ 출발(학사관별 출발)

- 서울학사관: 08:00 → 11:20(200분) 정림사지 도착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3길 21(오류동) → (172km) 정림사지 박물관
- 대전학사관: 09:30 → 11:10(100분) 정림사지 도착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8(선화동) → (59km) 정림사지 박물관

1. 정림사지박물관 관람: 11:20 → 12:00(40분)

- (이동) 식당: 12:00~12:05(5분) *정림사지박물관 인근에서 식사 예정
*정림사지박물관 → (270m) 식당 / 도보
- 점식식사: 12:05~12:50(45분)
- (이동) 국립부여박물관: 12:50~13:00(10분)
*식당 → (887m) 국립부여박물관 / 도보

2. 국립부여박물관 관람: 13:00 → 13:50(50분)

- (이동) 백제문화단지: 13:50~14:00(10분)
*국립부여박물관 → (5km) 백제문화단지

3. 백제문화단지 탐방: 14:00 → 16:00(120분)

- 탐방종료(학사관별 귀사)
 - 서울학사관: 16:00 → 19:30(210분) 서울학사관 도착
*백제문화단지 → (169km)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3길 21(오류동)
 - 대전학사관: 16:00 → 17:20(80분) 대전학사관 도착
*백제문화단지 → (63km)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8(선화동)

가을, 부여에서 만난 '백제의 미'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부여로 초대합니다!

1. 정림사지 박물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 09:00~18:30 월요일 정기휴무

□ 백제 사비 시대의 절정을 이루는 불교 문화의 중심축, 부여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사비 시대에 절정을 이루는 불교 문화의 중심축을 대표하는 중요 유적지로, 일본 고대사찰의 효시를 이룬다.

현재 절터에는 백제 시대의 석탑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과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높이 5.62m의 석불인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이 남아 있어 백제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계속 법통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백제고도 부여의 상징적 명소로서, 백제의 불교 문화와 정림사의 이해공간을 마련하고자 조성된 정림사지박물관은 백제 불교문화교류의 실증을 제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건물형태를 불교의 상징인 "卍(만)"자 모양으로 구성, 중앙홀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날개 모양인 것도 눈여겨볼 요소 중 하나다.



2. 국립부여박물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 09:00~18:30 월요일 정기휴무

□ 백제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사비 백제 왕도의 발자취

충남 선사 문화를 비롯하여 백제 말기 사비 시대 충청권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있는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있다.

○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는 고구려에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래 혼란을 거듭하던 백제가 안정을 되찾고 꽃피운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특히 뚜껑 위에 치켜 올라간 봉황 꼬리의 부드러움은 백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백제 시대의 창의성과 뛰어난 조형성을 바탕으로 당시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 공예기술 및 미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이다.

○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사리를 보관하는 용기로, 사리 봉안 연대와 공양자가 백제 당시의 유물에 의해 최초로 밝혀져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그 중요성이 크다.

○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제293호)

얼굴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미소와 비례에 맞는 몸의 형태, 부드럽고 생기있는 조각 수법을 통해 백제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3. 백제문화단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 09:00~18:30 월요일 정기휴무

□ 백제 역사 전문테마파크에서 만나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 체험

백제문화단지는 백제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조성된 역사테마파크이다. 백제 왕궁인 사비궁을 과거 삼국 시대 모습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왕궁뿐만 아니라 능사, 고분공원, 위례성, 생활문화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다.

왕궁과 사찰의 하양식 구조와 단청 등 백제 시대 대표적인 건축양식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백제 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 역사와 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백제문화의 메카로 성장 중이다.



○자료출처: 문화재청,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등